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4 | 제146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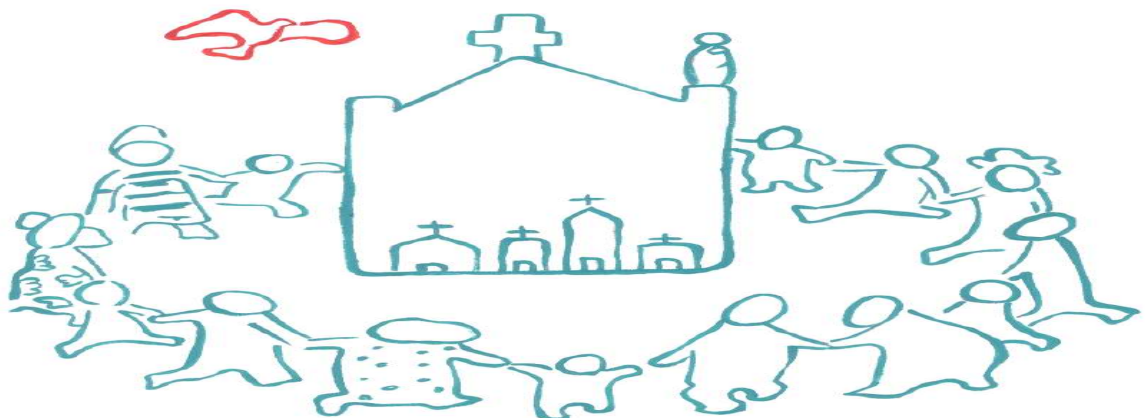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7.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부활 제2주일 · 하느님의 자비주일 (4월 11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요한 20,19-31)



의심에 찬 토마스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토마스의 의심에 찬 눈동자 속에 우리의 모습이 겹칩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곧잘 무너지고 의심하곤 합니다. 의심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굳게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바탕이요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써 '쌍둥이' 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확인하려 하고 믿지 않지만,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골로 3,15)처럼 그리스도의 평화로 마음을 다스린 체험을 나누어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더욱 꼭꼭 잠가두었습니다. 탈출로도 마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어느 때 안정감을 가지겠습니까? 평화는 믿음에서 옵니다. 부모가 지켜준다는 믿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는 동반자라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자주 좌절됩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그렇게 믿었던 부모도 더 약해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체구도, 지식도, 힘도 약해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자신 밖에 믿을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가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분임을 알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부활 제3주일 (4월 18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루카 24,35-48)



물고기를 드신 예수님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유령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 몸을 위한 빵과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8번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 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35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36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42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43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45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46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루카 24,38 L)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느님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루카 24,45)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체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사도들에 관한 일화를 통해 신앙의 삶이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말해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제자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오르락내리락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끌어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음을 평탄하게 하는 방법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콜로3,16 참조). 예수님의 부활체험을 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좋고 다른 성경 이야기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쓰인 하느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즉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그로 인해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읽은 내용이 바로 여러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대건본당 구역탐방기

- 대건본당 봉평 3, 4구역장 정복희 루시아 -

대건본당 봉평 3,4구역은 통영 미륵산 아래 봉숫골에 있습니다. 봉숫골에는 벚나무가 많아 봄이면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구역 구성원들이 산 아래 주공 아파트 많이 사시는데 홀로 사시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60대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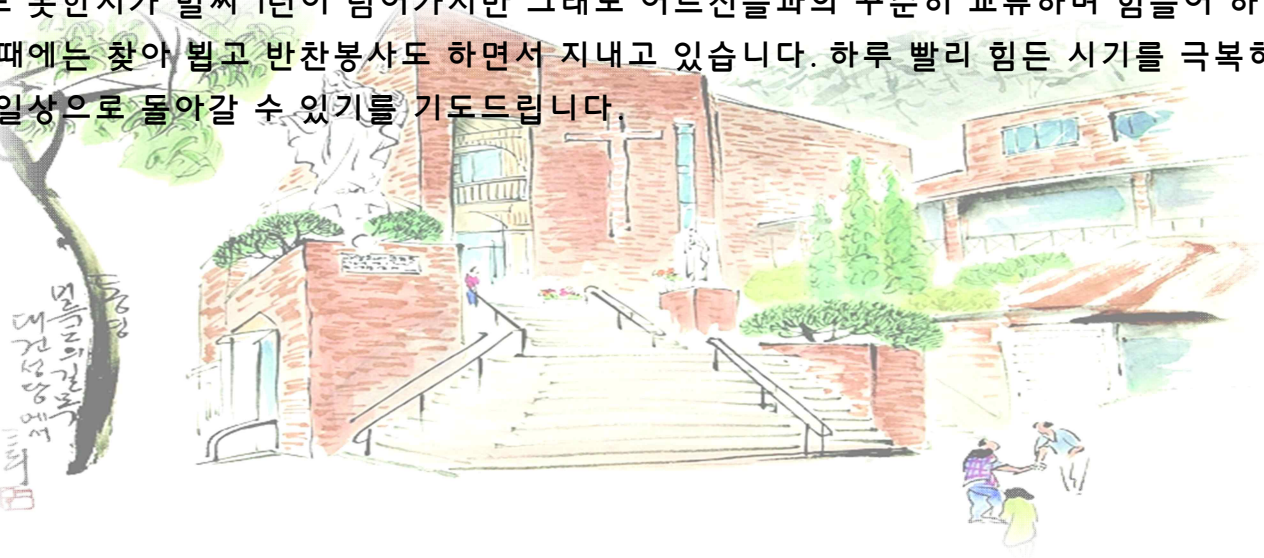
반모임이 없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저는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구역을 맡았습니다. 반모임이 없었던 터라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 반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오랜 시간 반모임을 가지지 못해 소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처럼 함께 모여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매달 모임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 뵙기로 했습니다. 반모임을 하면서 복음 나누기와 자유기도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기다리고 격려하는 가운데 조금씩 편안하게 기도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모임을 하면 한 마디씩 모두 기도하며 나눔도 곧잘 하십니다. 열 명 정도 꾸준히 모이고 있으며 서로의 집에서 돌아가며 모임을 합니다. 서로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보살피는 이웃이자 식구들입니다.

특히 저희 구역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구역 내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모임을 가집니다. 성모성월이나 가을에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여 나들이를 갑니다. 어르신들이 모처럼 소풍가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흐뭇합니다.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릴 때도 있고, 부활 시기에는 음식을 각자 준비하여 부활의 기쁨을 어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구역원들끼리 서로 돕고 나누는 시간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구역 반모임도 못한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과의 꾸준히 교류하며 힘들어하실 때에는 찾아 뵙고 반찬봉사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힘든 시기를 극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복음 나누기란 무엇인가요? ||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나누기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와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나누기를 할 때에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춘 지도자나 능력 있는 리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나누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누며 그것이 다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고 진솔하게 나누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5-16) □□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